



KIM SEONJEONG



LEE SONGMO



LEE JUYEON



KIM KYOUNG JU



LIMHUIJEONG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Vol.04



KIM MIYEONG



LEE EU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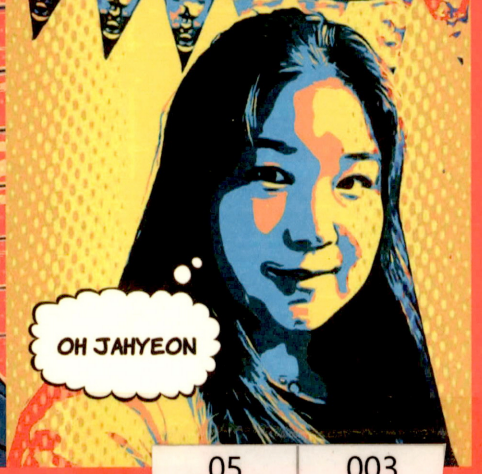
CHOEHYEONJI



PARKGYEONGMI



LEE EUNGYEONG



OH JAHYEON



> 할머니, 예전에 동네에 살았던 이웃들 중에 기억나시거나 그림거나 한 분은 안계세요?

나는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없다. 친할머니는 얼굴도 모른다. 돌아가신 큰아버지와 많이 닮았다는 것밖에는.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두 분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가 아니었을까?

홍영덕 할머니와 서명석 할머니는 신월3동 시니어합창단 단원이다.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 신월3동 시장으로 갔다. 합창단 연습실은 신월3동 골목시장 안쪽 건물 2층에 있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3층인 것 같다. 40대 초반인 내가 오르기도 조금은 힘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이곳을 수시로 다니실 것을 생각하니 다들 괜찮으신가, 생각이 든다.

서명석 할머니가 손님이 오셨으니 대접을 하신다며 믹스커피를 정성스레 타주신다.

할머니 두 분께 신월3동에 처음 오셨던 때를 물었다.



서명석 할머니 : 서울로 온지는 50년이 넘고, 신월동 온지는 40년이 넘고. 여기서 아들을 낳았어.



홍영덕 할머니 : 아이들 시골에서 다 키우고 막내가 열세 살 때인가? 그때 왔지. 그때는 논둑길로 막 다녔지. 전부 논이었어. 버스도 없이 논둑길로 다녔어.

당시에는 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고 하수구가 없어서 비라도 오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기 일쑤였다고 한다.



홍영덕 할머니 : 빨래도 그냥 그때는, 이상하게 해 입고 살았지. 아이고, 그, 깨끗이 못 입잖아. 힘들었제, 처음에 살 때, 물, 아궁이에서도 물이 나오고 연탄 해놓으면 연탄이 물에 젖어서 다 꺼지고 막 그랬어. 그때는 뭐 하수구도 없고 집만, 조그맣게 방한 칸에 부엌만 하나 있고 조그맣게 해놓고 살더라고.



홍영덕 할머니의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 학사면이다. 고향에 자주 가시는지 여쭙었다. 신월동이 고향 같은 곳일 거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홍영덕 할머니 : 고향은 자주 못가, 갈 수는 있는데 젊은이들이 가봤자, 친척들이 있으면 가는데 친척들이 없으니까, 안 가지더라고. 신월동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신월동이 고향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3,40년 동안 아이들 어릴 적부터 키우던 동네이니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사랑방이나 공동체 공간이 할머니 고향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정자와도 같은 곳이 아닐까?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사세요?”



서명석 할머니 : 언니하고, 아들하고 셋이 살아요. 언니가 어머니 같아요. 열네 살 차이 나요.



홍영덕 할머니 : 아들하고 며느리. 얼마 전에 합쳤지.

서명석 할머니의 언니분도 시니어합창단이다. 사진촬영을 위해 만난 서명석 할머니의 언니는 활짝 핀 꽃과 같은 웃음을 가진 분이였다. 홍영덕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 내외와 살림을 합치셨다. 혹시 신월동에 사시면서 기억나는 옛날 장면들이 있는지 여쭙었다.



서명석 할머니 : 요 아래골목에 살았거든요. 장마가 지나니까 길도 물바다, 마당도 물바다 부엌도 물바다 그랬었어요.



홍영덕 할머니 : 현대목욕탕 근처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밤에 잠을 못자. 나는 물이 하도 이쪽으로 와서 물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갔었어. 아니, 잠을 못자니까. 하수구가 길에서 터져서 물이 위로 솟아오르고 그러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50대까지 그러고 살았어.



홍영덕, 서명석 할머니 :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림거나, 그때 그래도 이런 건 좋았었어,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홍영덕 할머니 : 별로 없어요. 그때는 하도, 살라고, 벌어먹고 살라고 벌 걸 다했지. 벌 거 다해봤어. 생전 안 해본 장사도 해보고. 그래도 그때는 주변에서 일 다니던 사람들이 가서 일하자고 하면 가고 그랬지. 신월동 여기는 시골 같아. 노인네들이 엄청 많아요.

시니어합창단은 매주 월요일에는 함께 운동을 하고 금요일에는 합창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하는 날에는 치매교실도 함께 열린다고 한다. 모두 동네에 사셔서 모이는 날이 되면 걸어서 연습실까지 오신다. 연습할 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연습실이 1층에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신다. 연세가 있으셔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손에 가방만 들지 않았다면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계단 옆 페인트가 벗겨져 까만 잠바에 묻어났는데 할머니들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런 일은 별 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차가운 바닥이나 벗겨진 페인트, 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싱크대와 불편한 화장실은 새로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좋아하시는 곡이 있나요?

“나에 사알던 고향은 꽃피는 사안골~”

악보를 받으시자 바로 무대체질로 돌변하신다. 고운 목소리로 끝까지 불러주시니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한편으로는 나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그림고 슬프다. “할머니~”, 하며 안겨볼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 큰 손해인 것도 같다.

합창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노인정에 가거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 족두리 쓰고 결혼식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는 할머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할머니들과 어떻게 세월을 함께 해왔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소통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첫걸음이 아닐까?

>할머니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있으세요?

홍영덕 할머니 :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결혼식을 너무 험하게 해놔서 족두리 쓰고 한 번 해보고 싶어. 드레스 그런 게 어땠어. 드레스가 뭐여. 지금 한다고 하면 입어보고는 싶지.(웃음)

서명석 할머니 : 여기서 다 해줘서 해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미소)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바람이지만 동네에 화분이나 꽃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할머니들. 그분들 얼굴과 체온에 우리 동네 옛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식은 커피를 후루룩 다 마시고 나왔다.

